

## 수요일 오전 예배

**"탐욕의 끝"**

2024 년 7 월 3 일 수요일

오전 8:30 – 9:00

**예배 인도자:**

가능하면 일어나 주십시오.

**입례**

Lord, I Need You  
Have Thine Own Way

**예배로의 부름**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시 51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찬송가**

Give Us Clean Hands

**예배 진행자:**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어둠 속에서의 기도**

어둠 속에서,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찬송가**

Come Now, O Prince of Peace, 1 절  
GTG 103, SSS 235

어둠 속에서,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

왜 제가 잊혀졌나요?

왜 버림받았나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요?

**찬송가**

Come Now, O Prince of Peace, 2 절  
GTG 103, SSS 235

우리의 고통과 분열 속에서,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내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찬송가**

Come Now, O Prince of Peace, 3 절  
GTG 103, SSS 235

우리의 고통과 분열 속에서,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언제 실현될까요?

평화는 언제 올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찬송가**

Come Now, O Prince of Peace, 4 절  
GTG 103, SSS 235

**열린 태도를 위한 기도**

찢어진 빵의 하나님,  
깨진 돌,  
갈라진 벽,  
지금 우리를 깨우세요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세요,  
당신의 뜻을 자유롭게 행하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아멘.**

*Marcus Hong*

**성경봉독**

요 9:35-41

개역개정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2)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두려움 없는 통찰력"

루스 웨스트 목사, 캘리포니아주 레드랜즈 신학대학원 부학장

**찬송가**

Will You Come and Follow Me  
GTG 726

## 깨달음을 위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감각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백만 명이 고통에 울부짖는 동안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안락함에서 깨우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에서 고통받고 죽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글로벌 금융 제국의 그늘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손익으로 환산하여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의 현실에 빛을 비추세요.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경제 시스템이  
지구의 보물을 약탈합니다,  
매일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해당 생물의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생명체입니다.  
지구를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오 하나님, 오직 당신의 임재의 빛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해온 것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서로 하나되게 하소서.  
정의와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다 엔 라 티에라,  
라틴아메리카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연합, 2006  
공동 예배서 607-608*

**찬송가**

All the Poor and Powerless

**축도와 권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 계 1:8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미가 6:8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아멘.**